



2021년 4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27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4. 27.(화)	담당부서	가스산업과
담당과장	김 진 과장 (044-203-5230)	담 당 자	서성민 사무관(044-203-5232) 김기동 사무관(044-203-5237)

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(2021-2034) 공고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성윤모)는 '21년부터 '34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, 수급관리 및 공급설비 계획을 담은 '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'을 확정·공고하였다.
-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,
 - 금번 수급계획은 '20.4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와 수요전망, 시설계획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수요전망 >

- 총 천연가스 수요(기준수요)는 '21년 4,169만톤에서 '34년 4,797만톤으로 연평균 1.09%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었다.
-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·일반용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, 산업용 수요와 LNG 병커링, 수소차 등 신규 수요 증가로 '21년 2,168만톤에서 '34년 2,709만톤(연평균 1.73% 상승)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
- 발전용 수요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원구성 등을 고려시 '21년 2,001만톤에서 '34년 2,088만톤(연평균 0.33% 상승)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

□ 특히, 금번 계획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'기준수요' 전망 외에 '수급관리 수요'를 처음으로 전망하였으며,

- 이에 따른 총 천연가스 수요는 '21년 4,559만톤에서 '34년 5,253만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.
- '수급관리 수요'는 가스 저장시설 등 공급인프라 확충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,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.

< 도입 및 수급관리 >

□ 이와 같이 전망된 장기 수요에 따라 ①공급 안정성, ②가격 안정성, ③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확보할 계획이다.

- ①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도입선을 다변화하고, 도착지 제한* 완화 등 도입조건 유연성도 확보하여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며,

* 판매자가 구매자의 도입물량 도착지를 지정하여 도착지 이외의 지역으로는 물량 이전 금지 등 재판매를 금지하는 제한

- ②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완화를 위해 도입 가격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, 중기계약(5~10년) 등을 활용하여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.

* 가격산정방식 : ①유가 연동 ②美가스허브지수(Henry Hub) 연동 ③하이브리드(유가+HH)

- ③ 아울러, 에너지안보, 경제협력 등 전략적 협력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.

□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기업간·정부간 수급협력, 수급관리 역량제고도 강화할 예정이다.

-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*을 확대하고, 가스공사가 국내 직수입자나 해외구매자와 물량교환(swap)을 통한 수급협력을 강화하고,

*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·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 보전

- 이상한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.

< 공급인프라 >

-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스공사 제5기지(당진) 건설 등 '34년까지 총 1,840만㎥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,
 - 신규 수요처 공급 등을 위해 천연가스 주배관 789km를 추가 건설하는 등 공급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이다.
 - * 저장시설('20년 1,369만㎥ → '34년 1,840만㎥), 주배관('20년 4,945km → '34년 5,734km)
- 또한, 직수입자 등 민간사업자가 확대됨에 따라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제조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, 권역별 송출 가능한 용량을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배관시설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급설비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금년까지 태백, 청양 등 4개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화천, 청송 등 13개 군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(LPG) 배관망을 보급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(229개 시군구)에 대해 가스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.

< 신시장 >

- 액화천연가스(LNG) 병커링, 수소산업 등 천연가스 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.
 - 이를 위해, 액화천연가스(LNG) 병커링 터미널 건설, 병커링선 건조 지원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, 수소제조 사업자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체계 마련*, 전용요금제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.
 - * 기존 도시가스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가스공사 직공급도 허용
- 산업부 관계자는 “탄소중립 시대의 가교 에너지원(Bridge Fuel)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, 금번 수급계획에서는 기준수요 이외에도 수급관리 수요를 추가로 전망하고, 비축의무량도 상향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였다”고 밝히면서,
 - “14차 수급계획에 포함된 도입전략, 수급관리, 공급설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